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2023년 2월 15일 | 조사역(G3) 김성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9천 km <sup>2</sup> 	<b>인구</b> 29만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프랑스 해외령 	<b>대외정책</b> - 
<b>GDP</b> 93억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31,783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Comptoirs Français du Pacifique(CFPfr) 	<b>환율(US\$기준)</b> 114.5 (2022 <sup>e</sup> ) 

- 뉴칼레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쪽으로 1,500km,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1,700km 지점의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섬으로, 주민은 카낙족(토착 원주민), 유럽인, 폴리네시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85%)가 주를 이루고 있음.
- 1853년 프랑스 제2제정 당시 나폴레옹 3세 황제에 의하여 프랑스 영토로 편입되었고, 1956년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France d'outre-mer) 중 하나로 통합되었음. 현재 외교, 국방, 사법, 통화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정부재정 등을 지원받고 있음.
- 2022년 기준 세계 4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산업구조가 니켈 생산 및 수출에 편중되어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상태로 추정됨.
- 연중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깨끗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음.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로 관광업이 한동안 소강 상태였으나 최근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며 관광업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프랑스 해외영토)

주요협정 (프랑스 해외영토)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50,206	20,775	24,343	석유제품,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수입	250,913	257,448	342,073	니켈 원광, 정밀화학원료, 니켈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9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건, 173백만 달러

##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경제성장률(%)	-0.1	-1.2	0.2	1.5	2.5
GDP 규모(억 달러)	98	94	97	100	93
소비자물가상승률(%)	0.7	-0.1	-0.5	0.6	3.7
재정수지/GDP(%)	n/a	n/a	n/a	n/a	n/a
경상수지(억 달러)	n/a	n/a	n/a	n/a	n/a
경상수지/GDP(%)	n/a	n/a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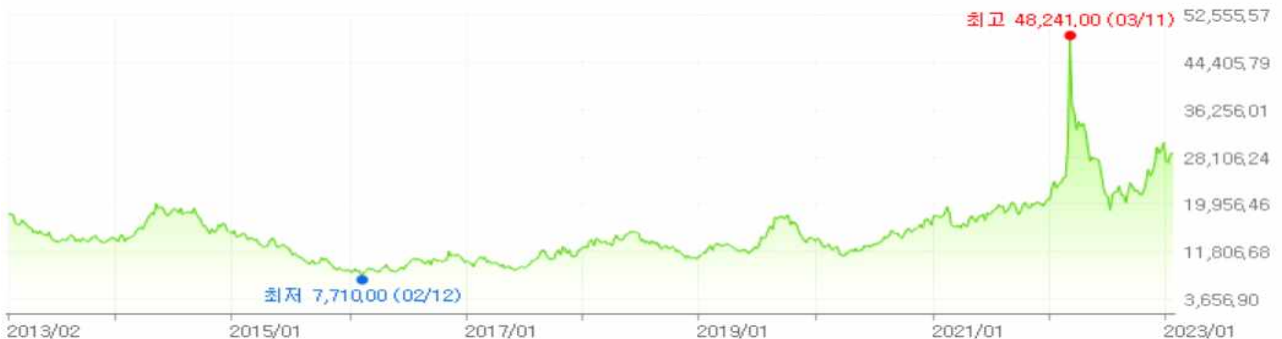
자료: EIU

## 국내경제

### 니켈 가격 상승과 관광업의 회복으로 2022년에는 2.5%의 경제성장 추정

- 니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뉴칼레도니아 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니켈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8~1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령에 따른 경제활동 침체, 관광객 입국 중단 등의 영향 속에서도 기저효과 등으로 0.2%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니켈 국제가격 상승 및 관광업의 회복에 힘입어 2023~24년까지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령의 실시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주요 사업인 관광업도 타격을 받았으나, 입국 제한을 해제하며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관광 부문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니켈 국제가격이 코로나19 이후 급등하고 있는 점은 동국 경제에 우호적인 요소이나, 독립 찬성파의 니켈 자원 통제 강화 요구, 환경 및 노동쟁의 증가,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니켈 산업의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 10년 간 니켈 국제가격 추이



자료: LME(런던금속거래소)

## 국내경제

### 독립된 통화정책이 부재하며, 유로화와 함께 달러 대비 지속적인 가치 하락을 기록함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해외영토(France d'outre-mer)로서 별도의 중앙은행 없이 프랑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정책금리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에 의해 좌우됨. 1999년 이래로 통화인 프렌치퍼시픽프랑(CFPfr)화의 환율은 유로당 119.3CFPfr로 고정된 페그제로 운영되고 있음.
- 유로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높아진 위험 회피 성향과 극심한 금융 변동성, 그리고 Fed의 공격적인 긴축정책으로 인해 2022년에 9개월 연속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하락하였음.
- EIU는 Fed가 2024년에 기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미 달러화의 약세와 함께 유로화 및 프렌치퍼시픽프랑화의 가치 상승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재정은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원조에 크게 의존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에 매년 약 14억 달러의 재정 이전(financial transfer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뉴칼레도니아 GDP(100억 달러)의 14%에 달하는 금액임. 자치정부 재정은 이러한 프랑스로부터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25년 상환의 2억 7천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고,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세금체불, 기업에 대한 재정 등을 지원하였음.
-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재정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 대외거래

###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추정

- 경제·산업구조가 니켈 원광 및 니켈 제품의 수출에 편중되어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경상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환도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

- 외채상환 역시 프랑스로부터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외환보유액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 구조적취약성

### 니켈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니켈 국제가격·수요에 따른 큰 변동성 존재

- 뉴칼레도니아는 주요 니켈 생산국으로, 니켈 수출이 상품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니켈의 국제가격 및 국제수요 변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3)에 의하면 뉴칼레도니아는 2022년 기준 세계 4위의 니켈 생산국(연간 19만 톤)이며, 710만 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수년 간 노동쟁의, 값비싼 전기료 등에 따른 높은 운영비용, 가격 정체 등으로 니켈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광산 기업들의 적자가 계속되고 성장동력도 저하되었음. 다만 2020년 이후 니켈 가격 상승, 주요 광산기업인 VNC의 자산매각 완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산업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임.
- 2023~24년에는 니켈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다소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전 세계 자동차의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러시아의 금속 수출 감소에 따라 향후 수십년 간 전 세계 니켈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독립 찬성파와 원주민 카낙족 세력은 니켈 자원이 뉴칼레도니아의 경제·정치적 독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해외 광산기업의 추가 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니켈 제조품이 아닌 니켈 원광의 수출은 뉴칼레도니아 내 제조공정 발달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킨다며 니켈 원광 수출을 줄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동국의 전력 생산이 충분치 않아 니켈 제련에 필요한 전력의 가격이 비싼 점은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에 따라 니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에는 제약이 있음.
- 또한, 2022년 기준 니켈 생산량 1, 2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광산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광산 업계 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 최대 광산 운영사인 Société Le Nickel(SLN, 프랑스 광산회사 Eramet의 자회사)은 생산량 부진, 악천후 및 비용 상승에 따른 현금 부족을 경고했으며, 2022년 말 뉴칼레도니아 정부는 외국 니켈 광산업자의 수출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승인한 바 있음.
- SLN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약속됐던 6,000만 달러의 국가지원금을 2023년 1월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석탄 및 석유 등 기업 운영비용의 증가와 악천후로 인한 생산 중단 및 필리핀, 호주 등의 니켈 생산량 증가를 근거로 자금 유입 없이는 기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의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상

- 니켈 생산 외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주로 소기업에 의해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가공품을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하는 정도에 그침.
- 니켈 원광 및 니켈 제품 외의 다른 수출품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니켈 국제가격은 2023년 중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가 강해 장기 평균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점차 증가하여 서비스 수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성장잠재력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관광업의 점진적인 회복 기대

-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는 연평균 기온 20~28도의 온화한 열대성 기후로 인해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를 보유하여 2019년까지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왔음.
-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뉴칼레도니아 국토의 6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되었으며, 호텔, 해양 스포츠 등의 관광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전면적인 이동제한을 실시하면서 관광객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6월 이동제한령 해제 후에도 국경 봉쇄는 계속되어 자국민의 귀국 및 공무를 위한 프랑스 공무원의 방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입국이 금지되었음.
- 이에 따라 뉴칼레도니아의 관광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으나, 2022년부터 프랑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관광객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관광업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뉴칼레도니아 총 입국자 수는 2019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2024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성과

### 신성장 동력 개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은 성공 전망이 불투명

- 농업과 어업의 발전을 통한 니켈 위주의 현 경제구조 다변화, 교육과 고용 기회가 적은 카낙족과 백인계 주민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자치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과제임. 생필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뉴칼레도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파른 세계적인 물가상승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취약한 전력 시설 등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 니켈 산업을 대체할 유력 성장동력이던 관광 산업의 불완전한 회복, 독립을 둘러싼 정치·사회 갈등 등으로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진 상황임.

### 녹색 에너지 정책, 니켈 판매 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경제 유지

- 뉴칼레도니아 니켈 업계에서 니켈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수요를 녹색 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실행에 옮겨짐.
- 2021년 정부는 프랑스 기업 TotalEnergie와 계약을 체결하여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발전량 16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였음. 이는 3개의 니켈 광산에서 필요한 전체 전력의 3분의 2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임.
- 또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광산업체 프로니리소시스(Prony Resources)와의 공급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니켈 판매를 유지하고 있음.

## 정치동향

### 2021년 2월 독립 찬성파가 의회 과반수 차지, 7월 독립 찬성파인 마푸 대통령 취임

- 2021년 2월 기존의 연정을 해체하고 독립 찬성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새로 출범하였으며, 7월에는 독립 찬성파이자 카낙족 출신인 루이스 마푸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독립 찬성파가 처음으로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카낙족 출신 대통령 역시 최초 사례임.
- 독립 찬성파가 의회 다수와 행정부를 차지하면서 독립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정체성이나 통치방식에 대한 독립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의견 불일치 등 독립 관련 이슈가 당분간 정치 활동을 지배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독립 3차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독립 찬성파와의 갈등 지속

- 1998년 프랑스 정부와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간에 체결된 누메아 협정에 따라 2018년 11월 및 2020년 10월 실시된 독립 관련 국민투표 결과는 프랑스 해외영토로 잔류하였음. 2021년 12월 진행된 마지막 3차 국민투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독립 찬성파들이 투표를 보이콧하여 카낙족 주거 지역인 북부와 Loyalty 섬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 투표율을 보이고, 전체 투표율은 44% 감소하며 프랑스 해외영토 잔류 찬성이 96.5%를 차지하며 마무리되었음.  
※1차 투표 독립 찬성 : 43.3%, 2차 투표 독립 찬성 : 46.7%
- 2021년 8월부터 3차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운동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9월 봉쇄령 실시로 선거운동이 중단되었으며 9~10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며 독립 찬성파의 기반인 카낙족 등 폴리네시아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독립 찬성파는 이 같은 상황과 수개월 이상의 추모 기간을 가지는 문화적 특성상 3차 국민투표 준비가 어려우므로 투표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10월부터 요청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3차 국민투표는 정당했으며 이에따라 뉴칼레도니아가 프랑스 영토로 잔류하는 것으로 독립문제를 최종 결정내렸지만, 독립 찬성파는 해당 투표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양당의 연합체인 FLNKS는 새로운 국민투표를 통해 2025년까지 완전한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 프랑스 정부는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뉴칼레도니아와의 관계 규정 법령에 대한 투표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프랑스 내에서도 뉴칼레도니아 독립 찬성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프랑스 공화국 내에서의 뉴칼레도니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투표 계획을 세워 독립 찬성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해외 프랑스령 장관을 보다 온건한 장 프랑수아 카랑코 장관으로 교체하였으며, 2022년 9월 카랑코 장관의 뉴칼레도니아 방문과 함께 관계규정 법령에 대한 투표 취소 선언으로 프랑스 정부와 독립 찬성파 간의 신뢰가 회복 중에 있음.
- 2022년 12월 프랑스 내무부 장관 게랄드 다르마닌은 파리에서 친독립 정당과의 첫 회담을 열었으며, 해당 회담에서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독립에 대한 재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음. 프랑스가 뉴칼레도니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FLNKS는 완전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우는 등 양측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음.



## 사회동향

###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자리 부족, 독립 추진 관련 갈등 등으로 시위 발생 가능성 상시 잠재

-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서국(島嶼國)의 특성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 환경오염 증가, 경제규모 협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특히 교육과 고용 기회가 백인계 주민에 비해 부족한 원주민 카낙족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일으킴.
- 세계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21년에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 실업률 추이 : 2012년 14.35% → 2015년 14.73% → 2017년 14.78% → 2021년 16.57%
- 3차 독립여부 국민투표를 둘러싼 독립 찬성파와 독립 반대파 및 프랑스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하며 누메아 협약 체결 이전의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됨.
- 2020년 말에는 VNC의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독립 찬성파와 카낙족이 해외 광산기업의 진입을 반대하고 국내 기업이 VNC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하였고, 시위는 니켈 광산이 위치한 고로 지역에서 수도인 누메아까지 확대되었음.
- 이처럼 독립 찬반을 둘러싼 직접적인 소요 발생 가능성 외에도, 독립을 지지하는 계층과 반대하는 계층 간의 갈등이 경제·사회 문제와 연계되어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잠재되어 있음.

## 국제관계

###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서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에 종속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외교·국방·사법 권한이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있어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의 국제관계에 종속됨.



##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뉴칼레도니아의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제시장평가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이므로 OECD 등은 별도의 신용등급 부여 없음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는 뉴칼레도니아를 별도의 독립국으로 간주하지 않아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2022년 뉴칼레도니아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관광객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관광업 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부존자원인 니켈의 국제가격 상승,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2.5%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3차례의 독립 여부 국민투표 결과 3번 모두 독립 반대가 우세하여 공식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독립 찬성파가 2021년 말 실시된 마지막 국민투표를 보이콧하였으며, 현재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이 모두 독립 찬성파라는 점에서 독립을 둘러싼 정치·사회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의 재정지원으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하고 있으며, 프랑스 해외영토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외채 및 대외결제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음.